

# “익산지역 학생들에게 후원 아끼지 않을 것”

## 함사모, 12명 학생에 장학금 전달

(사) 자원봉사단 만남 익산지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함사모) 장학재단에서는 이번에 6년째 익산지역의 모범 청소년,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해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함사모(대표 김현석)는 지난 20일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최영규도의원, 박철원시의원, 유재구시의원, 강경숙시의원, 김성호(익산시자원봉사센터 상무국장), 박연호(전북군경유족익산지부장), 김병철(익산시체육회이사), 박금성(신천지자원봉사단 익산지부장), 안정근사(함사모이사), 채수성(함사모이사) 등 총 10명의 인사들과 함께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사들은 익산 지역을 빛내고 있는 청소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 1년 동안 익산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각종 봉사활동으로부터 솔선수범하며 앞장서는 모습이 앞으로의 미래에 지역인재로 촉망이 되는 청소년 및 학생들 총12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장운지는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감사의 말을 표현해왔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봉사활동과 헌신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 자원봉사단 만남 익산지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함사모) 장학재단에서는 이번에 6년째 익산지역의 모범 청소년,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해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이어 김현석 대표는 “도움의 손길을 받은 청소년(학생들이) 앞으로의 익산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준비하게 된 것에 기쁨이 된다고 말했으

며 내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익산을 넘어서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종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익산지역 학생들에게 앞으로 더 포용력 있게 다가가겠다”고 답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전주푸른청소년센터 입소생 CJ꿈키움아카데미 요리부문 최종 합격

위기여성청소년을 돌보는 전주푸른청소년센터의 한 입소생이 CJ꿈키움아카데미 요리부문(베이커리) 2기 교육생으로 22일 최종 합격했다.

CJ나눔재단이 운영하는 CJ도너스캠프의 대표사업인 CJ꿈키움아카데미 요리부문은 단채급식, 베이커리, 커피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만 18세~24세 청년들이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학대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나이에 ‘혼자 버텨야 하는 삶의 무게’를 알게 된 정 모 입소생은(20)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해 전주푸른청소년센터에 입소했다. 이후 자신만의 목표, 사랑 나눔의 가치 실현을 꿈꾸며 매 순간 자기성장을 위하여 끈기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지난 20일 CJ꿈키움아카데미의 요리부문(베이커리) 2기 교육생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우수청소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 씨는 “부모님의 이혼 어머니의 학대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았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지만 어릴 적 아버지께서 생일 때 선물해준 케이크와 그 케이크 속에 담긴 자신만을 위한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처럼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빵을 통하여 진실어린 사랑 하루의 행복함을 전해주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채규남 기자

## 김성권·이난희 부부,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100만원 기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한 부부의 아름다운 기부 소식이 지역 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임실을 두만리에 거주하는 김성권씨 이난희씨 부부는 21일 임실군청을 찾아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 군수)에 전달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김씨 부부는 농촌지도자의 총무와 생활개선회 총무직을 수행하며 농촌문화 선도와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올해도 1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해 지역인재 육성에도 장서고 있다.

김성권씨 부부는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애향장학회에 기부하게 됐다”고 뜻을 밝히, 부부의 애정 어린 교향사랑은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천천면사무소, 매달 첫째주 화요일 친절교육

천천면사무소(면장 김재홍)는 면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첫째주 화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친절교육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알맞은 전화민원 및 방문 민원의 응대요령, 마음가짐, 올바른 언어표현법 등 민원 처리 요령을 교육하고 민원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 부안농협, 노을감자박스 무상지원 전달식

농민을 위한 농협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는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지난 21일 부안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작목반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년의 숨씨 부안 노을감자박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천년의 숨씨 부안 노을감자는 동진 면에 감자하우스 84농가에 1.137동에서 부안노을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농협은 재배농가에 20kg감자박스를 17,000매 23,000천 원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천년의 숨씨 부안 노을감자는 무기질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생산돼 맛과 품질이 뛰어나 공관장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동진면은 감자재배에 적합한 알칼리성 사질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이 뛰어나며 껍질이 얇고 저장성이 좋을 뿐 아니라 마그네슘·나트륨 등 무기질함량이 높다. 또 칼륨성분이 높아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해 혈압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고 열량이 낮아 여성들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부안농협이 농가소득 5천만 원시 대에 앞장서려고 작목반을 육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하우스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b>전주매일</b>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66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장수군 정보화마을 주민들 켈트공예 배움 한창

장수군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켈트공예 배우기에 한창이다.

풍물동동마을과 별해는마을은 KRA(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농촌작은문화교실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켈트공예는 손바느질로 생활소품을 만들어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공예프로그램으로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